

언어 장벽 허물고 건강관리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글 복해용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에 달했다. 지금도 농업 및 중소 제조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매해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입국 시 법무부 장관(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는다.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내국인과 동일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협회, 외국인 노동자 건강관리에 앞장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건강진단팀(이하 협회)은 법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수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채용건강검진부터 일반·특수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앞장서왔다. 아울러 낯선 타국에서 받는 건강검진이 자칫 형식적인 검진이 될 수도 있어 많은 업무적 보완을 실시해왔다. 예



컨대 외국인 전용 문진표를 각 언어별로 준비하거나 검진 동선을 단순화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툰 한국어와 낯선 나라의 검진시스템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살폈다. 그러나 내국인도 알기 힘든 검사법을 이해시키거나 노동자들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진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와 업무 협약(2019년 12월 12일)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관 협업, 아름다운 시너지

2022년 건강검진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수원금속(9월 22일), 대성후드텍(10월 7일)에서 두 기관의 협업을 진행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부 김재현 부장과 신지혜 차장의 업무 지원 아래 원어민 통역사들이 접수부터 문진까지 언어 소통이 필요한 모든 곳에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역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와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스리랑카 국적의 한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해결돼 부담 없이 검진을 받고 몸 상태를 정확히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고향 사람을 만나 더욱더 편안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협업의 일등 공신은 단연 원어민 통역사들이다. 국내에 오랜 기간 체류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평상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검진 협업이 있을 때는 검진통역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건강검진 현장은 온종일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경직되지 않은 편안함 속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검진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이번 협업을 통해 극복한 까닭이다. 두 기관의 협업은 이제 4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지혜 차장은 이날 모든 검진이 끝난 후 협회와의 협업에 감사를 표하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공단이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협회 역시 이번 협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의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나아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

